

의복상징성과 양성평등

고 애 란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교수)

의복, 가구, 일용품 등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은 문화의 물질적 산물로서 무형의 문화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체로 표현된 것이며, 문화의 의미를 그 구성원에게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문화의 의미는 패션체계를 통해 제품으로 구체화되어 연상의 범칙에 따라 그 의미들이 제품 속에 불어넣어지며 제품의 구입, 소유, 선물 등의 사용과정을 통해 다시 개인에게 전달된다. 문화가 그 구성원이 사용하는 제품의 형태로 구체화되면 문화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태가 되어 문화의 의미를 단순히 나타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구성원에게 문화를 확산시키는 역할까지도 하게 된다. 따라서 제품은 계층, 신분, 성, 연령과 같은 문화적 범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그러한 범주에 따라 질서를 세우고, 가치, 신념, 아이디어와 같은 문화적 원리를 표현하는 것을 도와준다.

제품이 문화적 원리와 범주를 표현하므로 제품은 문화에서의 변화를 상징하는 도구로도 사용된다. 문화의 변화는 문화의 구성요소에서의 점진적인 또는 급격한 변화-연령별 인구비율의 변화, 기술발전 등-에 의해 일어나며 새로운 개념을 전달하기 위한 제품상징의 변화를 수반한다. 즉, 제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의 새로운 조합 또는 선택적 사용, 의미의 혁신을 통해 변화된 문화적 개념을 표현하게 된다(McCracken, 1988).

‘제2의 피부’로 불릴 만큼 인간과 가장 가깝게 사용되는 의복은 많은 문화적 범주를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로서 개인과 집단 주체성-성, 연령, 직업 역할, 경제적 계층, 정치적 신념 등을 반영하며, 결혼, 사망 등의 통과의례와 문화의식을 명확히 해 주는 역할을 한다. 본 문에서는 의복의 사회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성에 따른 의복상징성이 정립되어진 역사적 배경과 변화하는 성역할 개념에 따른 의복상징성에서의 변화를 살펴본 후 양성평등사회의 생활문화를 정립하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나타나는 의생활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에 관련된 몇 가지 주제에 대해 주로 문헌자료와 심층면접¹⁾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심층면접은 2003년 3월과 4월에 주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면접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사례1. 47세, 대졸, 2남 전업주부, 자가 거주, 가구월소득(400만원), 자산(4억원)

의복에서의 전통적 성 개념

오랜 역사 동안 의복은 성(sex)을 구별하고 성(gender)의 사회적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해왔다. 이러한 성 관련 상징성의 발달 과정을 현대주의의 국제적 보편화에 밀려 우리의 전통의복 대신 일상복으로 받아들여 착용하고 있는 서양의복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생물학적인 성의 차이를 의복으로 뚜렷하게 구분하기 시작한 것은 고딕시대부터이며 르네상스의 이념에 의해 더욱 확고하게 되었다. 의복 구성방법에서의 기술발전과 신 중심에서 인간중심 사교로의 변화에 의해 성의 차이는 계급차이와 함께 의복이 전달해주는 또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 특히 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는 남자는 바지, 여자는 발을 덮는 긴 스커트의 착용이었다. 유목민 사이에서 발달된 의복인 바지는 중세시대 동안 활동성의 기능을 위해서만 착용되었으며 농경정착생활 이후로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갖는 남성의 상징물은 아니었다. 오히려 '발을 덮는 긴 원피스(robe)'가 착용자의 부를 상징하고 신체를 확장시켜 주는 기능을 가짐으로써 지배계층의 권위를 상징하는 의복으로 사용되어 왔다.

르네상스의 인간중심 사교의 발달은 의복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인체를 과장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자연스러운 성적 충동의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남성들은 바지를 착용하고 다리를 드러냄으로써 우월한 남성임을 과시하며 능동적 방법인 관찰로 성적 충동을 표현하였다. 반면 여성들은 열등한 사회적 지위로 인하여 긴 스커트 속에 의존과 연약함의 상징으로 다리를 감추었으며 수동적 방법인 신체의 다른 부분을 이용하여 보여 지기 원하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후로 여성의 의복은 그들의 성적 매력을 보이기 위한 도구로 시도되어 왔다.

지배계층임을 과시하기 위한 상징으로서 여성복 못지않게 화려하고 장식적이었던 남성복이 점차 기능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유럽사회의 계층구조가 시민운동 등에 의해서 도전 받기 시작한 17세기에 들어서이다. 남성복에서의 장식 제거, 간소화는 남성이 '명예'라는 상징

사례2. 42세 고졸, 2남, 전업주부, 자가 거주, 가구 월소득(200만원), 자산1억원

사례3. 49세. 고졸, 1남2녀, 작가, 자가 거주, 가구 월소득(500만원), 자산(10억원)

사례4 35세, 대졸. 자녀수 2, 취업, 전셋집 거주.

사례5 59세. 국졸, 2남, 취업, 자가거주, 가구 월소득(150만원), 자산(6천만원)

사례6. 30세. 대졸, 자녀 무, 취업, 전셋집 거주, 가구 월소득(200만원), 자산(5천만원)

사례7. 44세, 대학원졸, 2녀, 취업, 자가 거주, 가구 월소득(600만원), 자산(4억원)

사례8, 42세, 전문대졸, 1녀, 취업, 자가거주, 가구 월소득(600만원), 자산(4억 5천만원)

사례9, 43세, 고졸, 1남 2녀, 자영업, 자가거주, 가구 월소득(300만원), 자산(4억원)

사례10, 36세, 대졸, 자녀수 1, 취업, 가구 월소득(450만원)

사례11, 53세, 대졸, 2남, 전업주부, 자가 거주, 가구 월소득(600만원)

을 얻기 위한 의도에서 먼저 출발한 것이다. 남성의복이 디자인 면에서 여성의복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면서 의복디자인의 주요 요소인 선, 색, 재질의 자연에서 느껴지는 감정-수직선의 힘, 곡선의 부드러움, 밝은 색의 연약함, 어두운 색의 엄격함 등-이 남성과 여성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정관념화 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산업혁명으로 인해 사회적 역할구분이 더욱 뚜렷해지면서 19세기 초반에 완성된 쓰리피스 정장(three-piece suit)의 남성복은 부귀, 능력, 존경 등의 의미를 전달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산업화의 결과로 남성의 특권은 더욱 커졌으며 여성은 법적으로 자율적인 주체가 아니라 남편, 아버지 또는 아들의 보호를 받는 존재이며 결혼과 아들의 생산능력에 의해서만 사회적 주체성을 부여받게 되었다. 이러한 성차별은 경제활동에 남자가 함께 참여하는 하류층보다는 상류층과 특히 화이트칼라, 중류층에서 심하게 나타났다. 즉, 산업혁명 이후 남성은 직업을 가진 존재로 공적 영역에서, 여성은 가정이라는 사적 영역에서 머무는 존재로서의 성의 구분이 확립됨으로서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관념 역시 사회적 우월과 열등의 표시로서 대립되었다. 따라서, 산업 사회의 남성의 복식은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상징하는 반면 여성의 복식은 남성에 의존적이며 가정에 얽매인 존재로서의 여성을 대표하였으며, 남편의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었다.

서양복식을 처음 받아들였던 시기의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의 엄격한 신분사회와 유교적 윤리관에 의해 의복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어 임금, 양반, 평민 등의 신분과 함께 남, 녀의 성에 따라 의복의 특성이 뚜렷하였다. 개화기동안 서양문물을 받아들임으로써 신분차별을 개혁하고자 하였으나 서양의복의 복식규정에 내재된 성의 차별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한 채 서양의복의 성 관련 상징성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복은 또한 특정 시기에 사회적으로 규정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매개체이므로 의복상징성을 이해할 때 의복이 입혀지는 신체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다. 전통적인 성개념이 자리 잡히는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의 차이는 두 집단간의 불평등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기제로서 사용되었다. 즉, 계몽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 따라 여성들 사이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남녀평등의 이념을 제거하기 위해 남녀간의 신체 차이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여 공적 영역에서의 정신적 활동을 감당해 낼 수 있는 남성의 몸에 비해서 여성의 몸은 불안정하고 불완전한 것으로 여겨지게 한 것이다. 이렇게 우열이 매겨진 몸의 차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사회적 지위는 더욱 자연스럽게 자리 잡히게 되었다.

여성의 이상적인 몸매에 대한 기준 역시 사회적 특성에 따라 시대마다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산업화 이전에는 살찐 몸이 우월한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는 상징이었으나, 산업화로 부가 확산되면서 음식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상류층의 중요한 상징이 되었고 이에 따라 날씬한 몸매가 새로운 미적인 이상이 되었다. 또한 부르주아 집단에서는 연약한 몸매의

아내는 사회적 활동을 할 필요가 없는 혜택을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성공한 남편의 상징이 되었다. 20세기의 대중매체의 등장은 이러한 날씬함의 이상을 전 사회계층으로 확산시켰으며 서양의학에서 제시하는 건강에 대한 예방의학 담론과 통합되어 건강한 몸은 날씬한 몸이고 그것은 곧 아름다운 몸이라는 개념을 갖게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비만과 과체중에 의해 유발되는 문제만이 부각되고 저체중에 의해 비롯될 수 있는 건강문제가 간과되면서 미디어가 제시하는 미적 기준에 집착하는 여성들 사이에서 식이장애와 같은 부작용이 급증하는 문제를 낳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이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남성의 시선에 종속되어 있는 몸을 매개로 하지 않고도 성공의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나 시각적 이미지가 압도적인 힘을 가지는 현대 소비문화가 여성들에게 부여하는 이상적인 몸이라는 이미지의 틀 속에서 오히려 지금의 여성들은 스스로 외모 가꾸기의 의미와 즐거움을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날씬한 몸매로 변화하는 과정은 대개 서구화라는 시각으로 조망됨으로써 날씬한 몸매를 가지는 것은 서구화와 최첨단의 발전이라는 가치를 함축하게 되었다. 서구화된 미의 기준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킨 것은 아시안 게임과 서울올림픽이 치뤄진 시기이며,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가 선진국에 들어섰다고 선언되면서 소비의 미덕이 찬양되고, 대중매체와 이미지 산업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이상적 외모가 상징적,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여성운동과 의복상징성의 변화

역사적으로 볼 때 성에 적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닌 이성의 의복을 착용하는 이유로는 신성의 상징, 무질서의 추구, 무정부주의의 표방, 희극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으나(이민선, 김민자, 1995), 여성이 남성의 복장을 채택하는 것은 의복이 가지는 성 관련 상징성을 이용함으로써 성정체감에 대해 반항하고 여성해방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즉, 페미니즘의 전통적 시각은 의복이 여성억압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고 여성의 신체를 상품화하여 상업주의와 연계시키는 도구라고 보는 것이었다.

1851년 처음 등장한 여성해방의 상징적 의복인 블루머 드레스는 산업혁명에 따른 현대화된 생활양식에 맞게 의복에서의 장식성을 배제하고 기능성을 강조하는 복장개혁운동(Dress Reform Movement)을 통해 나타났다. 코르셋을 입지 않는 짧은 드레스와 바지로 구성됨으로써 비활동적이고 비위생적인 의복으로부터 여성의 신체를 해방시키고 참정권 등 여성의 지위를 높이고자 시도되었던 블루머 드레스는 비록 1년 만에 실패하였으나 최초의 집단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현대주의가 최고에 달한 1960년대에 일어난 반현대화, 반산업화의 개혁운동을 통해 성차별적인 의복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즉, 기계주의와 물질문명에 의한 비인간화, 국제적 보편주의에 의한 소수민족 차별에 대한 반발과 함께 산업화를 통해 뿌리 깊어진 성차별의 모순을 없애고자 하였다.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상징적인 의복으로서 남녀 모두 다듬지 않은 긴 머리와 진 바지 노동복이 채택되었다. 이는 남성에게는 성공을 위한 일상적인 생활의 반복과 그로 인한 개인적 주체성의 상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능력을 상징하는 단서들을 거부한 것이며, 여성에게는 남자의 경제력에 기본을 둔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는 예속적인 지위 대신 노동을 통한 여성해방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바지가 여성유행의 한 항목으로 정착되어 1세기 전 블루머 드레스를 통해 시도되었던 '남성의 전유물'이던 바지의 착용이 실현된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에서의 성공을 위한 의복으로서 남성복의 특징을 받아들인 의복들이 착용되었다.

20세기 중반이후 전개되는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은 여성성의 긍정적 강조에 의거하는 본질주의적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해 능력의 상징성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남성 의복의 권위, 능력의 상징을 모방하지 않고, 남성이 가질 수 없는 여성 신체를 더욱 강조하는 의복을 사용하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에서 시도되는 여성의복에서 성적 매력의 강조는 열등한 입장에서 남성에게 보여지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상징의 사용을 통해 남녀평등을 주장했던 1970년대의 페미니스트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여성우월성을 나타냄으로써 여성해방을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체 속의 타자를 인정하는 해체론적인 입장에서는 복식에서의 성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남녀 모두의 성에서 해방된 양성성의 표현으로서 의복에서 의도적인 성의 불일치를 나타내고 있다. 즉, 야성적인 남성미를 상징하는 가죽옷에 여성스러운 미니스커트를 조화시키거나 남성 신사복 디자인의 펜츠 슈트에 여성 속옷 형태의 셔츠를 조화시키는 것과 같이 모더니즘적 디자인 원리를 무시하고 하나의 외모 속에 성에 관련된 양면성을 표현함으로써 성의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다. 성 차이를 부정하는 또 다른 표현방법은 여성적이고 장식적인 스타일을 추구하거나 여성들만이 입는 의복으로 간주되었던 스커트를 남성의 일상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즉, 남성성에 대한 고정관념의 틀을 해체하며 오히려 여성적인 특질을 받아들이는 남성중심주의의 해체를 표현하고 있다.

직장에서의 양성평등과 의복상징

서구의 경우 19세기말부터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운동이 등장하면서 여성들이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6, 70년대 경제 개발 과정에서, 80년대 이후에는

교육수준의 향상과 여성해방의 이념이 확산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 진출이 크게 확대되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의 변화는 여성의복에서의 변화를 수반하며, 시대에 따른 여성의 사회적 역할의 변화는 대중매체를 통해 강화된다. TV 드라마와 영화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의 의복은 사회 내에서의 여성역할의 변화를 가장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주는 단서가 되곤 한다. 이는 단 시간 내에 등장인물의 성격, 역할 등을 알리기 위해서 가장 전형적이고 고정관념화된 모습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내용분석방법으로 접근한 여러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시기에 따른 여성의 역할 변화는 보다 남성적인, 또는 성의 차이를 두지 않는 의복으로서 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진행된 연구(김문영, 2002)에서는 영화 등의 미디어를 통해 표현되는 전문직 여성의 의복은 대부분 스커트 슈트와 남성적인 셔츠형 블라우스의 형태로서 표현되며 색상을 통해 보수적인 이미지를 전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인상형성 연구방법으로 접근한 직업역할에 적절한 의복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 즉 남성적인 직업 또는 관리직에는 남성적 스타일을 착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지각되었으나 오히려 극단적인 남성적 스타일은 여성의 외모와 조화되지 않기 때문에 전문직이나 관리직에도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된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하겠다.

또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과거 1970년대의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추구했던 남녀평등을 위해 남성들의 의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에서 제시하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각각의 장점을 받아들이며 각 각의 성에 적합한 의복을 착용하는 것에도 연관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어렵지 않게 마주치게 되는 활동성과 기능성을 요구하는 많은 직종의 여성의 유니폼으로서 여전히 활동성이 고려되지 않은 스커트를 착용하는 것은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음을 보여준다.

이와 함께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을 가로막는 것은 미디어에서 제시하는 성공한 여성의 이미지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부각되는 것이 바로 세련된 패션과 스타일을 소화해 낼 수 있는 날씬한 외모이며 이러한 이미지가 단지 이미지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성들의 사회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기업에서 여성의 외모를 중요한 직업적 자질의 하나로 평가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여성의 외모에 대한 남성들의 시선과 일치하는 것이다. 결국 여성들이 사회적 성공과 자아실현을 통해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체감을 가지려는 시도는 여성을 아름다운 육체를 가진 존재로 한정짓는 노동시장의 남성 중심적 통제로 말미암아 지속적으로 장애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가정 내에서의 양성평등과 의생활

사회적으로 의미가 부여된 성역할 개념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에 의한 성역할 사회화를 통해 습득되며 따라서 성역할과 관련된 개인의 태도와 행동은 가정 내에서의 성역할 개념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본 절에서는 개인의 성역할 태도가 의복행동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살펴보고 가정 내에서의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직접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의복구입시의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성역할 태도와 의복행동

사회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에 맞는 의복을 착용하는 것은 적절한 성역할 태도의 표현이며, 각 개인들은 남성 또는 여성의 성역할에 따른 의복을 착용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규정된 성차별을 고수하게 된다(Davis, 1984). 성에 적절한 의복을 착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성역할 사회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가정은 학교, 대중매체와 함께 성역할 사회화의 공급자가 된다.

Kaiser(1981, 1985)는 2세~10세(두 번째 연구에서는 6세~13세)의 여아를 대상으로 한 두 연구를 통해 의복을 통한 성의 인식은 어린이의 인지발달과 함께 이른 나이에 형성되며, 의복을 통해 확인된 성 특성에 따라 착용자의 성격 및 선호 놀이유형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가장 남성적인 스타일을 주로 입는 여아는 남아들이 주로 하는 거친 놀이를 할 것으로, 여성적인 의복을 입는 여아는 양전한 놀이를 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성격특성에서도 의복스타일에 따라 남성 또는 여성에 고정관념화된 특성을 연상하였다.

심층면접 결과 대부분의 피면접자는 자녀의 의복에 대해 어떻게 관여를 하는지의 질문에 대해 대체로 단정한 것, 때와 장소에 적절한 것, 직장에 적절한 것 등을 착용하도록 조언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자녀의 성에 따른 의복착용에서의 차이는 단 한 사례에서만 남·녀에 따라 노출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주의시킨다는 응답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언급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두 명의 피면접자의 응답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어려서부터 적절한 의복을 골라주고 훈련시켰기 때문에 즉, 의복착용에서의 사회화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성장한 후에는 큰 관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현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기준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개인은 사람의 특질이나 성향, 행동 등이 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습득하고 있으므로 일차적으로 강력한 성관련 단서로 작용하는 의복에 의해 다른 사람의 성을 판단하게 되고, 이차적으로는 의복을 단서로 하여 판단된 성의 견지에서 타인을 평가하고 특성을 추론하는 등 대인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이미현·임숙자(1996)는 대인지각 시 남성적인 의복, 여성적인 의복, 성의 구분이 애매한 의복 등의 성 관련 의복단서와 관찰자 자신의 성 역할 정체감이 착용자의 성격 및 능력 추론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남성적이거나 성의 구분이 애매한 의복을 착용한 여자에 대해 적극적이고 대담하며 외향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평가한 반면 여성적인 의복을 착용한 사람은 소극적이고 내향적이

며 보수적인 성격으로 판단하였으며, 남성적인 의복을 입은 사람이 더 활동적이며 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변화하는 성역할에 대한 태도는 의복에서의 성의 차이를 두지 않는 유니섹스 의복에 대한 태도와 연관되어 7, 80년대에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었으며 개방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닐수록 유니섹스 의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더 자주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최근에 진행된 차진희·김재숙(1995)의 연구에서도 전통적 성역할 개념을 가진 사람이 성에 따른 전통적인 의복특징을 따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며, 평등한 성역할 개념을 가진 사람은 남성이 여성적인 의복 또는 장식을 하거나 여성이 남성적인 의복 또는 장식을 하는 유니섹스 의복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남녀 피험자 모두 남자보다는 여자의 유니섹스 의복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고 남자 피험자보다는 여자 피험자가 유니섹스 의복에 대해 좀더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포스트모던 페미니즘의 탈 중심적 사고가 남성성에 대한 특권의식을 붕괴시키고 성 및 성 역할 고정관념으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써, 기존의 권위적인 강건한 이미지에서 해방되어 장식적인 여성적 복식 요소, 그런지룩과 같은 하류계층의 복식 요소 등을 남성 패션에 표현하는 것이 보다 자유로워지기는 하였으나(이민선, 2001)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 사이에서 남성이 여성스러운 복장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마른 몸매에 대한 선호와 이로부터 비롯되는 지나친 다이어트와 식이장애 등의 부작용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미디어이미지는 여성들을 억압하는 또 다른 성차별의 도구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Lennon 등(1999)은 여성들의 외모꾸미기와 신체이미지, 자아존중감 및 성역할 태도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지닌 여성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매력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외모를 갖는 것이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음을 발견하였다. 즉 외모에 부여된 성 이데올로기가 전통적 성역할 태도를 갖는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의복구매 의사결정에서의 남·녀의 역할

가정경제활동에서의 제품의 구입은 대부분 여성의 역할로 인식되어 있다. 의류를 중심으로 가정경제활동으로서의 의류구입과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은영(1995)은 남편 의류의 구매에 있어 부부간의 의사결정 구조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의복품목별 차이에서는 내의는 부인이 구매를 전담하는 부인 주도적 의복범주로, 구두는 남편 주도적 품목으로 나타났다. 티셔츠, 와이셔츠, 단품 바지류는 부인이 많이 참여하고 잠바와 정장양복, 넥타이는 부인과 남편의 영향력이 거의 동등하였으며 등산복 등의 레저복은 남편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남편의 연령이 높고, 부인과 남편의 학력이 낮고, 가족생활주기의 후기에 해당할수록 부인 단독 결정이 많았으며, 공동 협의 결정 집단에서는 가족 생활주기의 전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편 단독 결정형에서는 남편의 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의복구입 시 많은 품목에서 부인의 영향이 나타나며 특히, 부인의 단독 결정이 많은 가정은 남편의 연령이 높고 가족 생활주기의 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남성이 의복이나 외모에 관심을 갖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전통적인 사고가 남아있으며 의복을 마련하는 일을 여성이 해야 하는 사적 영역으로 규정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며 그러나 이러한 태도가 연령이 낮아질수록 적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심층면접에서도 대부분의 피면접자가 남편의 의복구입 시 관여를 하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부인의 의복구입 시 남편이 관여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남편의 영향이 매우 큰 경우는 두 사례에서 나타났다. 그 중 한 사례는 남편의 취향에 맞추어 특히 색상에 신경 써서 모든 의복을 구입하며 모임을 위한 의복을 구입할 경우에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모임의 성격에 맞추어서 구입하며,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사치스럽지 않고 품위 있어 보이는 의복을 착용한다고 하였다. 또 한 사례는 의복구입 시 부인이 선택한 여러 대안 중에서 남편이 최종적으로 구입을 결정하며 남편에 의해 제시되는 의복 기준은 품위 있고 단정한 것, 노출이 적고 몸에 붙지 않는 스타일, 검정색이 아닌 것 등 매우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한다고 하였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취향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의복에 대해 남편이 전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기꺼이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그 이유는 남편의 미적 감각을 높이 평가하고, 가정 및 사회생활에서의 남편의 태도를 신뢰하고 존경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한, 두 사람 모두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본인의 의복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한다는 대부분의 피면접자들도 모임을 위한 의복을 선택할 경우에는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 등을 고려한다고 응답하여 산업사회에서 자리 잡기 시작한 남편의 지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의 부인의 의복에서의 상징성은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맺음말

성차별은 오랜 역사 동안 거의 맹목적으로 추종되어 온 사회적 이념이었다.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밝혀진 것과 같이 과거 남성과 여성에 연결되어 온 능력의 차이는 개인의 문제이지 성의 문제가 아니며, 사회질서를 위한 계층적 구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도 성 범주는 그 구성비율에서부

터 적절치 않다.

아직까지 사회와 가정 내에 성차별의 모습이 미처 인식되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보다 발전적인 생각들이 등장하고 있다. 과거의 남성중심주의가 아닌 또한 여성만의 해방이 아닌 남녀 공동의 인간 해방을 이루고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존중하는 포스트모더니즘 페미니즘의 이념이 다양한 패션의 형태로 소개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이념들이 대중유행으로 무르익음으로써 양성평등의 의복상징이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면서 동반자적인 관계로서의 양성평등의 이념이 구성원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자리 잡히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강혜원(1995). 의상사회심리학(개정판). 교문사.

김문영(2001). 영화 여주인공의 의복이미지에 나타난 전문직업여성의 복장 유형의 변화 연구(1), 대한가정학회지, 40(11), 157-170.

손미희(1999). Post modern-Feminism의 문화현상과 패션. 복식, 46호. 49-66.

이미현 · 임숙자(1996). 성 관련 의복단서와 성 역할 정체감이 대인지각에 미치는 영향 -여대생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4(3), 325-336.

이민선(2001), 가부장제도, 페미니즘, 포스트모던 페미니즘과 남성 패션에 표현된 남성 성, 한국 의류학회지, 25(2), 470-481.

이민선 · 김민자(1995). 복식에서 성의 가치적 불일치에 관한 사적 연구 -고대에서 근대 까지-, 한국 의류학회지, 19(2), 340-355.

한서설아(2000). 다이어트의 성정치. 책세상문고 · 우리시대.

차진희 · 김재숙(1995). 성역할 개념, 의복 성정체감, 유니섹스 의복에 대한 태도 사이의 상관 연구 -대전, 충남북 지역의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19(5), 738-746.

최은영(1995). 남편의류의 구매에 있어 부부간 역할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19(1), 115-128.

최현숙(2000). 패션에 표현된 전통적 · 페미니즘 · 포스트모던 페미니즘 여성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앤 홀랜더(1996). 의복과 성, 경춘사

Barnes, R. & Eicher, J. B. (1991). *Dress and gender*. London: Berg Pub.

- Crane, D.(2000). *Fashion and its social agendas: Class, gender, and identity in clothin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avis, L. L.(1984). Sex, gender identity, and behavior concerning sex-related clothing.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3(2), 20-24.
- Lennon, S. J., Rudd, N. A., Sloan, B., & Kim, J. S.(1999). Attitude toward gender roles, self-esteem, and body image: Application of a model.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7(4), 191-202.
- McCracken, G.(1988). *Culture and consumption: New approaches to the symbolic character of consumer goods and activities*. Indiana University Press.